독립운동가와 친일파, 항일투쟁의 역사

박시백의 일제강점사 35년

박시백 | 비아북 | 2만원

일본에 강제 병합된 191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강점기 우리의 역사를 만화로 그려낸 독보적인 책 '박시백의 일제강점사 35년'은 2018년 1권 출간 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국민 필독서로 자리매김해 왔다. 10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방대한 분량, 탄탄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현장감 넘치는 장면 장면이 7권에 걸쳐 펼쳐진다. 광복 79주년을 맞아, 그림과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고 표지를 재단장해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양장 에디션'이 재출간됐다.

3·1절 105주년을 맞은 지난 3월1일 광주 광산구 홍범도공원에서 고려인마을 주최로 3·1절 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책은 가혹한 탄압으로 조선을 집어삼킨 조선총독부와 경찰들,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나라와 동족을 팔아넘긴 친일파들, 민중의 들끓는 저항이 폭발했던 3·1혁명의 순간들과 그 이후의 대중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분열, 식민지 경성에서 벗어나 간도·연해주·상하이·하와이를 넘나들며 해외에서 독립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이들,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으로 독립을 향한 의지를 불태운 독립투사들, 우리에게 다소 생소했던 김알렉산드라, 윤희순, 남자현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작가가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가급적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친일부역자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1~7권까지 100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얽히고설킨 관계를 씨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며 입체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박 화백은 만평작가 출신답게 촌철살인의 감각으로 당대의 사건과 인물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또한 시기별 연표를 본문 끝에 수록해 연도별 국내와 세계의 주요 사건들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부록 '인명사전'에서는 독립운동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생애와 역사적 평가에 대해 촘촘한 정리를 곁들였다. 특히 7권에서는 만주침공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의 승승장구에 많은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가 친일파로 전향한 과정과 행위 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주로 사회 지도층으로 귀족, 관리, 군인, 예술계, 종교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된 친일파들은 전쟁 협력과 내선일체를 선전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해방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며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리 잡았다.

만화를 통해 스토리로 이해하고, 부록을 통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살아 숨 쉬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만나보자.

저자 박시백 작가는 "일제 강점 35년의 역사는 부단한, 그리고 치열한 항일투쟁의 역사"라고 말한다. 더불어 "가급적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친일부역자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출간했다고 밝힌다.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는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흔히 답한다. 하지만 나랏일을 하는 이가 아닌 평범한 우리에게는 좀 추상적인 답변이다. 혹자는 역사에서 살아갈 지혜를 얻는다고도 한다. 그런데 항일투쟁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던 반면 친일 부역의 길은 안락과 영화의 길이었다. 후자처럼 사는 게 역사에서 얻는 지혜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역사를 배우는 건 너무 참담한 일이 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젊은 시 언어의 에너지…네 번째 접견

시 보다 2024

박지일 외 7명 | 문학과지성사 | 7000원

현대 시의 흐름을 전하는 특별 기획 '시 보다 2024'가 출간됐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는 젊은 시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문지문학상 시 부문을 신설했다. 문지문학상 시 후보작을 묶어 해마다 한 권씩 출간하는 시리즈로 네 번째를 맞이한 올해는 박지일, 송희지, 신이인, 양안다, 여세실, 임유영, 조시현, 차현준 시인의 작품들이 수록됐다.

박지일의 '물보라'는 "시에 스며 있는 근원적 비애와 에너지를 동시적으로 형성"한다는 찬사를 받았고 송희지의 '루주rouge'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새로운 서정의 출현을 예감하게 만든다"는 평을 받았다.

신이인은 '실 낙 원'에서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무해한 마음으로 더 넓은 시 세계를 유영한다.

양안다는 시 '다음 미래'를 통해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시선이 동시에 맞물려 얽혀 있는 시적 그물망을 삶 가까이 끌어올린다.

이밖에 심사위원들은 여세실의 '방학 숙제'를 특유의 천진한 태도와 투명하게 비치는 언어로 독자에게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평했고 임유영의 '연해주'를 다채로운 장면들을 돌발적으로 연결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색다른 방식으로 펼쳤다고 논평했다.

조시현의 시 '캠프파이어'는 시와 사랑에는 어떠한 한계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되새기게 만들고 차현준의 '붙여놓기'는 수사나 장치보다 언어 그 자체에 주목하게 만드는 힘을 보여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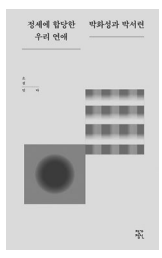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 일컫는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 지금, 젊은 시인들의 언어적 운동에너지에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 시의 시대가 사라져 버린 것 같던 시간 속 어느새 낯선 감각을 다시 읽어줄 독자들이 출현한 것은 한국 문학의 심층에서 본 적 없는 시 쓰기와 시 읽기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박찬 기자

백 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차별과 통제를 되짚는 '만남'

정세에 합당한 우리 연애

박화성, 박서련 | 작가정신 | 1만6000원



최초의 근대 여성 작가 김명순이 데뷔한 지 한 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현대 여성 작가와의 백 년 시공을 뛰어넘은 만남을 통해 한국문학의 또 다른 근원과 현재를 보여주고자 기획된 '소설, 잇다'의 여섯번째 작품 '정세에 합당한 우리 연애'가 새로 출간됐다.

1903년 목포에서 태어나 1988년 85세를 일기로 타계하기까지 한국 여성문학사상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하며 사회와 역사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박화성 작가와 지난 201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혜성같이 등장한 박서련 작가의 작품들이 이 책에 수록됐다.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 '홍수전후', '호박'은 그가 생전 그려내고자 했던 노동자와 민중, 여성들이 억압받는 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이다.

수탈자인 일본인 관리와 공사 책임자들에게 피지배자인 하수도 공사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부조리한 현실과 이에 투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룬 작품 '하수도 공사'는 탁월한 인물 활용으로 계급의식의 각성으로 인한 갈등과 모순도 함께 드러낸다.

'홍수전후'에선 35년 만의 대홍수가 앗아간 한 가정의 소중한 딸과 재산으로 빈부격차와 비례하는 자연재해의 피해와 참상을 보여주며 개혁의 의지를 다잡는 농민들의 군상을 다룬다.

박서련 작가의 '정세에 합당한 우리 연애'는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를 변주한 소설로도 읽힌다. 인문학 독서 동아리 '유독'의 회장이자 총여학생회 선거를 앞둔 진은 그의 여자친구 림과의 관계를 비밀에 부치려 한다. 독서 토론 시간 대상 작품이 된 '하수도 공사'에 대한 열띤 의견이 오가던 중 림이 내던진 말은 여성의 삶을 옭아매는 차별과 통제, 배제의 문제를 관통한다.

일제의 착취에 저항해 동맹 파업을 강행한 '민족적 대의'가 한 세기를 넘겨 레즈비언 공표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등 남성중심주의와 이성애주의로 가득한 현대로 이어지는 100년의 간극은 공명이 흐르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 선명히 찍힌 억압과 차별의 그림자다.

박찬 기자

위대한 그의 빛

정이현 | 문학동네 | 1만6800원

늘 새롭고 강렬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사로잡아온 심윤경 작가가 '영원한 유산' 이후 3년 만에 장편소설 '위대한 그의 빛'으로 돌아왔다. 희대의 친일파가 남긴 대저택 벽수산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소설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불멸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떠오르게 한다. 차이점이라면 위대한 개츠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서술하는 이가 남성 '닉'이었다면 이 작품에선 여성 '이규아'라는 점이다. 뉴욕에서 방황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규아의 독백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속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성의 목소리로 다시 쓴 21세기의 위대한 개츠비로 빠져들어 간다.

완벽이라는 중독

토머스 커런 | 북라이프 | 1만8500원

완벽주의에 대한 환상으로 촘촘히 짜인 문화가 현대인들에게 끼친 영향과 이로 인해 파생된 불안, 집착, 좌절, 우울 등을 심리적 관점으로 설파한다. 저자는 완벽주의가 개인에서 시작된 집착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책에선 완벽주의를 다루지만, 경쟁과 비교,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아파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려낸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끊임없는 완벽 추구와 무의식적 압박으로 생겨난 완벽주의를 저자는 '감춰진 유행병'으로 단언한다.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여러 권리의 회복을 꾀하는 선언문을 통해 완벽주의가 야기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찰해 보자.

나를 돌보기 위해 정리를 시작합니다

정코 | 비즈니스북스 | 1만8000원

수납·정리용품 회사인 스피드랙의 대표이자 정리수납전문가인 저자는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는 공간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저자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삶' 속의 정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유튜브 채널 '정리마켓'을 시작해 57만명의 구독자와 1억3000만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확보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고 비우는 것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정리 습관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자. 이 자기계발서로 전국의 살림 고수들이 직접 알려주는 10가지 정리 습관과 각 에피소드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